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랑가라컬리지의 위치는 여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좋았으나 제 홈스테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약 1시간 조금 안 됐는데 제 친구는 걸어서 20분정도 안되는 거리에 홈스테이집이 있어서 이 부분은 홈스테이마다 천차만별인 거 같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거 같고 시설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 항상 페이퍼타올이 구비되어있던 점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활발하고 힘이 넘쳤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수업내용은 1주차:English Essentials 2주차:Cultural Studies 3주차:Global Citizenship 이였고 수업은 대부분 그룹토의나 파트너와의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 등 다른 나라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의를 많이 해서 영어로 대화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덕분에 스피킹을 하는데 두려움이 조금 없어졌고 실력이 향상된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본인 친구들도 사귄 수 있었습니다.</p> <p>첫 날 학교에서 리스닝 테스트를 보는데 성적과 나라, 성별을 따져서 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저희 반 선생님의 경우에는 수업에 있어서 정말 열정이 넘치셔서 항상 시간을 딱 맞게 끝내주셨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을 때는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셨으며 영어로 많이 이야기 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p> <p>반마다 과제의 양이 달랐는데 저희 반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저널을 두 번 정도 썼고 교재의 숙제가 한 세 번 정도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저널과 숙제의 난이도가 쉬운편이며 저널의 경우에는 '벤쿠버에서의 첫주' 등 일상적인 주제에 따른 글을 썼습니다. 교재의 숙제는 박물관에 다녀온 후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쓰기, 홈스테이 가족 인터뷰 등 간단했습니다. 수업에는 바인더(교재)와 저널, 필기도구만 가지고 다니면 됐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총 4개의 Activity를 했는데 첫 번째로 Discover Vancouver로 한명의 현지인과 6-7명정도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별로 밴쿠버의 여러 명소를 돌아 다니는 활동입니다. 약 9:30AM-3:00PM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다면서 이동합니다. 오래 걷기 때문에 물을 챙겨서 가면 좋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눠준 compass card로 다니기 때문에 따로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p> <p>두 번째는 Kayaking으로 호수? 바다?에서 카약을 합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 갔는데 원래 3시에 학교가 끝나는데 5시 쯤 끝났던 거 같습니다. 2인 1조가 팀이 되어서 뒷사람은 페달을 밟아 방향을 바꾸고 앞사람은 페달을 밟아 앞으로 가게 합니다. 햇빛이 세서 선크림이나 선글라스, 모자, 물 등을 챙겨가는 게 좋을 거 같으나 예전에 카약킹을 하다 보트가 뒤집어 저서 선글라스를 물에 빠트리려 찾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므로 추가비용은 따로 없고 끝나고 당이 떨어져서 젤라도 사먹었는데 꽤 비싸요. 자세한 가격은 생각이 안나는데 맛있었으니 사먹는 거 추천합니다!</p> <p>세 번째는 아쿠아리움에 다녀왔는데 이것도 역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 갔습니다. 아쿠아리움인데 새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4D 체험관도 있고 쇼도 하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쿠아리움안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약간 싸구려 맛이 나서 안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물이나 추가비용은 따로 없습니다.</p> <p>마지막으로 Whistler Trip으로 산에 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모두 곤돌라를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많이 걷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휘슬러까지 거리가 꽤 있기에 오전 7시에 학교에 모여서 오후 7-8시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가기 며칠 전에 휘슬러에서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주변이 많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휘슬러가 높아서 올라가면 많이 추우니 겹옷을 챙겨가세요. 저는 안에 반팔티 입고 위에 후드티 입었는데도 조금 추웠습니다. 친구는 별로 안추웠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후드티나 후드집업 등 두겹게 입거나 겹옷을 챙겨왔습니다. 반팔만 입은 학생은 못 본 거 같아요. 스쿨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따로 없었고 도시락을 먹지 않고 사먹을 학생들의 경우 관광지라 그런지 꽤 비싸므로 돈을 많이 챙겨가야 할 거 같아요.</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p>날씨</p>	<p>현지 기후 및 유의점  첫 주차에는 햇빛이 매우 강해서 반팔에 반바지를 입어도 괜찮았는데 이 주차에 비가 조금 오면서 추워졌어요. 반팔, 반바지를 입기에는 쌀쌀해졌습니다. 반팔을 엄청 많이 챙겨왔었는데 긴팔이랑 긴바지를 많이 챙겨올 걸 후회했어요. 전체적으로 매우 건조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햇빛이 세서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선글라스가 있으면 좋아요. 제가 있을 때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작은 우산을 챙기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p>
<p>안전</p>	<p>현지 안전 상황  캐나다는 안전한 편이지만 마약이 합법이기 때문에 다운타운과 가스타운과 가까이 있는 Hastings ST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친구 중에 버스를 환승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스팅스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 내렸는데 그 쪽에 있는 공원에 마약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듣기로 낮에는 공원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밤에는 좀비처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곳에 항상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운타운에서도 벤치에 앉아 마약을 하는 거 같은 사람을 봤었습니다. 되도록 밤에는 그쪽을 돌아다니지 마세요.</p>
<p>숙소</p>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는 지하와 1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제방에는 불이 안들어와서 램프 두 개를 사용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해가 안가는게 저는 쌀을 제일 좋아한다고 사전 설문지에 체크했었는데 홈맘이 스페인쪽 사람이었어서 그런지 쌀밥을 한번도 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햇반 등 한식을 조금 사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홈스테이 가족들이 중국어나 필리핀계 사람들의 경우에는 밥을 주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홈스테이 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처럼 정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정말 남남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의 구성원들끼리도 개인주의인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홈스테이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홈스테이 경우에는 따로 규칙같은 것은 없었는데 다른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먹지 않을 거면 미리 얘기를 하든가 샤워시간을 10분내외로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홈스테이 하는 동안 유의할 점은 한국처럼 보일러가 있지 않고 집마다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은</p>

	<p>샤워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분 내외로 샤워를 끝내야 하고 샤워를 할 때 욕조안에 들어가서 샤워커튼을 치고 화장실 바닥에 물이 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p>
<p>식사</p>	<p>학교식당( √ ) 홈스테이 ( √ ) 외부식당 ( √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에는 시리얼이나 과일 같이 간단하게 해결을 했고 낮에는 주로 홈스테이에서 싸준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보통 메뉴는 샌드위치, 파스타, 또는 이름 모를 음식들이었고 가끔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팀홀튼에서 도넛이나, 랩을 사먹었습니다.</p> <p>저녁은 대부분 친구들과 밖에서 사먹었는데 가격은 식당마다 천차만별이었고 식당이 싸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한식이 먹고 싶으면 롭슨스트리트에 있는 '수라'에 가서 사먹는 것을 추천해요. 대부분 메뉴의 가격이 10\$ 이상이지만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한국인 분이 하는 식당으로 알고 있고 종업원 분들도 다 한국인이예요.</p> <p>만약에 저같이 쌀밥을 먹지 않는 홈스테이의 경우에는 정말 캐나다에 있는동안 밀가루 같은 것만 먹기 때문에 한국에서 라면이나 햇반을 챙겨가세요!</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했습니다. 집에서 한 7분정도 걸어나와 버스를 40분 정도 타고 스카이트레인으로 환승해서 5분정도 타고 내려서 또 10분정도 걸었습니다. 제 홈스테이가 학교에서 먼 편에 속했습니다.</p> <p>시내교통은 보통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하는데 버스의 경우에도 금방 오는 편이었으니 간혹 2-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은 Canada line, Expo line, Millennium line 으로 총 세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Canada line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Millennium line은 거의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의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고 배차간격도 짧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Sea bus라는 교통수단도 있는데 한번도 이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p> <p>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갈 때는 Ferry를 이용했는데 Ferry는 compass card가 아닌 별도로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합니다.</p> <p>그리고 밴쿠버에는 1zone, 2zone, 3zone이 있는데 zone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1zone카드를 가진 사람이 2zone이나 3zone으로 이동할 때는 따로 돈을 충전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후 6:30분 이후에는 어디로 이동하든 1zone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고 주말에는 모든 곳이 1zone 비용입니다. 2zone 이나 3zone을 가고 싶다면 주말이나 오후 6시반이후에 가세</p>

	요!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115만원	쇼핑, 식사
카드	90-100만원	쇼핑, 식사
합계	4,008,7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쇼핑을 많이 하실 예정이거나 외식을 많이 하실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환전을 많이 해가세요. 저도 가족들과 친구들의 선물들을 사고 쇼핑과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 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카드로 하면 따로 수수료까지 들어가니까 환전을 많이 해가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캐나다는 물값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5-600원이면 살 생수가 캐나다에선 1600원이 조금 더 넘어요. 텀블러를 꼭 챙겨가세요. 반팔옷도 좋지만 긴팔옷을 많이 챙겨가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 년도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3주중에 2주는 내내 쌀쌀하고 추워서 계속 겹옷을 입고 다녔어요.

홈스테이 배정받으면 메일을 통해 내가 가져가야 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저는 수건과 샤워용품 모두 다 챙겨가야 했어요. 그리고 렌즈를 쓰시는 분이라면 작은 사이즈의 리뉴는 3주차동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5일 정도 남기고 리뉴가 다 떨어졌었어요.

캐나다와 한국 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댑터를 챙겨가세요. 그리고 고데기 같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실 거라면 필요한 정격전압을 확인하고 가세요. 저는 봉고데기를 챙겨갔는데 전압이 부족한지 전원이 들어오지않아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짐만됐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정말 후회없는 3주를 보낸 거 같아요. 먼저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온 친구들이 다 강추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 저도 주변사람들한테 꼭 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재미있었고 값진 경험을 한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EO라고 English Only를 강조하며 영어로만 대화를 하도록 하게 하고 수업의 대부분이 말하는 참여형 수업방식이여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으나 그 덕분에 영어실력도 향상되고 다른 국가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캐나다를 다녀와서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캐나다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너무 좋았고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훨씬 도움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영어와 관련해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공부를 더 할 예정이고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참여해서 계속 스피킹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Gastown 증기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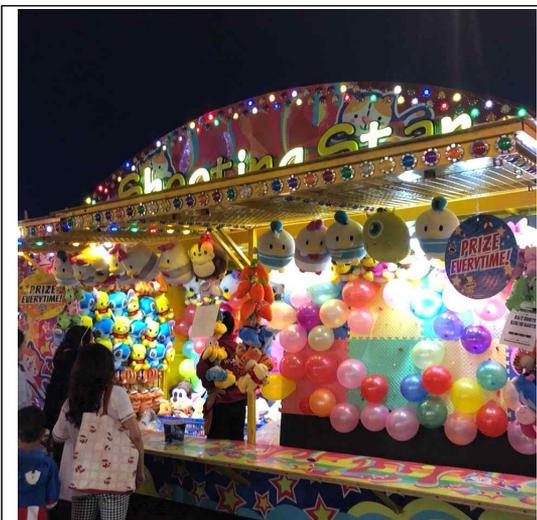
Victoria Island – British Columbia  
Parliament Buildings



Victoria Island – The Butchart  
Gardens



Lynn Canyon



Richmond Night Market



Whistler